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1.20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30.00원(-3.00원)

KOSPI

5,137.89(+70.45, +1.39%)

KOSDAQ

684.81(+22.00, +3.32%)

국고채 10년 금리

3.942(-0.03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2027년 글로벌ETF 관심 테마	체급보다 체력: 잘 버티거나, 더 남기거나 [장치영]

Global Asset Strategy

하나채권	[11월 금통위 프리뷰] 주가보다 실물 [박준우]

기업분석

피에이치에이	환율이 가린 해외 성장, 강화되는 주주환원 [송선재]
네오셈	성장의 다음 페이지를 확인할 시간 [한유건]

Weekly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스페이스X 수혜주 찾기 [김홍식]
유틸리티 Weekly	난이도가 낮아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삼양식품, 이수페타시스, 팬오션, 효성티앤씨, 계룡건설, 케이엠더블유

하나증권

2026년 11월 20일 | Global Equity

2027년 글로벌ETF 관심 테마

체급보다 체력: 잘 버티거나, 더 남기거나

글로벌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느려지는 성장, 높은 자본비용: 매출 둔화 국면에서 이익 기대치 점검 필요

- 2027년 S&P500 매출 증가율은 9.1%로 전년(13.2%) 대비 둔화할 전망이나 EPS 전망치는 연초 대비 18.7% 상향. 과거 매출 증가율이 둔화한 해에는 EPS 컨센서스 하향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경험
- 유가 부담이 근원 물가로 전이됨에 따라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 CCC-B등급 간 신용스프레드 격차는 2010년 이후 상위 1% 수준으로, 재무 여력에 따른 기업 간 차별화 진행

체급보다 체력: 이익 변동성이 낮은 업종과 AI 인프라 밖의 성장 동력에 주목

- 영업레버리지와 이익률 변동성이 낮은 이익 방어형(필수소비재 유통·헬스케어 장비), 영업이익률이 개선 중인 수익성 개선형(소프트웨어·금융서비스·소비자 서비스) 업종 선별
- AI 인프라 관련주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서비스 업종과 반도체 간 주가 상관관계는 하락. 소비 채널 변화와 AI 활용 확산에서 성장 동력 확인

ETF Idea: RTH, PEJ, IGV, CIBR, IPAY

① 유통(RTH): 가격 민감도 상승으로 일상 소비는 저가·온라인 채널로 이동. AI로 상품을 찾아도 구매의 약 80%는 아마존과 대형 할인점에서 완료. 가격·물류 경쟁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RTH에 관심

② 여행(PEJ): 일상 소비와 달리 여행은 선택적 고급화가 나타나는 중. 2027년 유가 상승률 하락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는 항공·레저 기업의 비용 구조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

③ 소프트웨어·보안(IGV, CIBR): 토큰 가격 하락은 AI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 AI 활용 증가로 인건비·업무 처리비용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업종의 비용 효율화 여지 확대. AI 활용이 늘수록 데이터 보호·신원 인증 등 보안 수요도 함께 증가

④ 결제(IPAY): 결제 네트워크는 2026~2028년 연 12~14%의 꾸준한 매출 성장 전망. AI에 결제를 맡기는 신뢰도는 23%에 그치지만 Visa는 61%로, AI 에이전트 거래 확대 시 결제 인프라의 역할 부각



Analyst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2026년 11월 19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11월 금통위 프리뷰] 주가보다 실물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가 하락보다 실물 견조함에 주목. 11월 기준금리 3.25%로 만장일치 인상 전망**
- **내년 성장률과 근원물가 3.5%, 2.7%로 상향, 점도표 중간값 3.50% 예상**
- **11월 인상은 이미 반영. 최종 기준금리 3.75% 가능성이 커지지 않으면 긴축 우려 정점에 근접. 국채 투자의견 '중립'. 점차 내년 금리 하락 가능성에 대비**

11월 25bp 인상 및 최종 기준금리 3.50% 전망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만장일치 인상**할 전망이다 [도표 1]. **향후 6개월 점도표는 중간값 3.5%**로 추가 1회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할 것이다 [도표 2]. 대다수의 점이 3.50%에 찍히는 가운데 3.25%보다 3.75%가 소폭이나마 우세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및 점도표 상향의 근거는 경제 전망이다. KDI와 IMF는 11월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3.8%, 3.9%', '3.9%, 3.3%'로 높였다 [도표 3]. **한은도 8월 전망(3.3%, 2.9%)에서 올해 3.9%, 내년 3.5% 수준으로 상향**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반도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하고 민간소비까지 개선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도표 4].

[참고] 기본적인 시계열 경제 모델은 내년도 성장률을 3% 초반대로 예측하는 반면, 반도체 설비투자 및 수출 관련 바텀-업 전망을 결합하는 경우 4% 수준으로 급등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대로 이전보다 약 3배 높아진 점도 주요 기관의 전망이 급격히 상향된 요인 중 하나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면서 물가 전망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GDP 갭률은 2027년 말 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도표 5]. 성장이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근원물가 전망은 8월 2.5%에서 2.7%로 높아질 전망**이다. 목표를 웃도는 근원물가가 이어지면 11월 인상은 물론, 추가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채권은 **내년 2월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

경제 전망 이외에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다. 바로 **(1) 주가와 (2) 환율 하락의 영향**이다.

(1) KOSPI는 10월 한 달간 16.2% 하락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하락하여 5,000pt 부근에 머무르고 있다. 주가 조정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은은 주가보다 수출 가격, DRAM 가격 등 실물 지표를 중시해 왔다. 총재는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고, DRAM 수출가격은 주가 급락 국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표 6]. 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면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2) USDKRW 환율은 7월 고점(1,554.4원) 대비 10% 넘게 하락했다. 환율 급등기라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인상 논리가 성립하지만 지금은 그 논리가 약해졌다. 그러나 한은이 펀더멘털을 강조한다면, 환율이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를 낮추지만 경상수지 흑자 등 강한 대내 펀더멘털의 결과이며, **과거 인상 사이클에서도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도표 7]. 최근 환율 급락에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은 11월 인상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통안채 3개월 금리가 기준금리를 25bp가량 웃돌아 7월과 마찬가지로 11월 인상을 사실상 100%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 [도표 8]. 따라서 이번 회의의 관건은 인상 여부보다 2027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폭과 점도표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추가 인상을 시사하더라도 점도표에서 3.75% 가능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은 **긴축 기대가 정점을 지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채권은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되 모멘텀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된다는 가정하에 기준금리 2회 인상을 전망하고 **한국 국채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크는 성장 재가속화 시나리오다. 한은의 2027년 성장률 전망이 KDI 전망과 같이 3% 후반대로 높아지거나, 점도표를 통해 3.75%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경우 국채 금리는 내년 초 추가 인상 시점까지 상승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고 **내년 금리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20일 | 기업분석

피에이치에이 (043370)

환율이 가린 해외 성장, 강화되는 주주환원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원
현재주가(11.19)	10,6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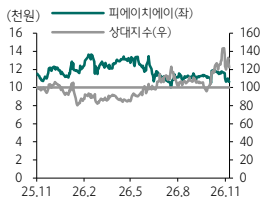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684.81
52주 최고/최저(원)	13,650/10,010
시가총액(십억원)	223.2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21,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3
외국인지분율(%)	14.43
주요주주 지분율(%)	
김상태 외 2 인	54.63
브이아이피자산운용	10.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33.0	1,308.4
영업이익(십억원)	40.7	43.6
순이익(십억원)	42.6	42.1
EPS(원)	2,029	2,005
BPS(원)	45,833	47,56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52.9	1,200.7	1,250.8	1,318.9
영업이익	51.5	48.4	41.1	41.7
세전이익	83.3	54.6	50.9	53.8
순이익	61.9	46.3	43.3	40.7
EPS	2,950	2,204	2,061	1,974
증감율	0.72	(25.29)	(6.49)	(4.22)
PER	3.41	5.33	5.17	5.40
PBR	0.26	0.29	0.25	0.24
EV/EBITDA	0.35	0.39	0.88	0.61
ROE	8.14	5.63	5.02	4.53
BPS	38,706	40,837	42,526	45,128
DPS	350	400	450	475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P/E 5배대, P/B 0.2배대, 배당수익률 4.2%, 자기주식 취득/소각

피에이치에이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한다. 3분기 영업이익은 85억원으로 기존 예상치에 부합했다. 원화 강세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법인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북미 매출액은 신공장 램프업으로 30% (YoY) 증가했고, 인도는 2분기 생산차질에서 벗어나며 23% (YoY) 반등했다. 북미/인도는 향후 수년간 외형 성장을 이끌 것이다. 주주환원은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다. 2027년 4월까지 7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발행주식의 3.1%)을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기보유 자기주식 7.0%도 개정 상법에 따라 2027년 중 소각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 10%의 주식수 감소까지 전망할 수 있다. 2026년 주당배당금도 450원(+5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기대 배당수익률은 4.2%). 현재 주가는 2027년 추정 실적 기준 P/E 5배대, P/B 0.2배대인데, 해외 법인 성장과 강화되는 주주환원을 감안하면 저평가 해소 여지가 크다.

3Q26 Review: 영업이익률 2.7% 기록

피에이치에이의 3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치에 부합했다(영업이익 기준 +2%).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11% 변동한 3,141억원/85억원(영업이익률 2.7%, -0.6%p (YoY))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이 고객사 생산 둔화의 영향으로 1% (YoY) 감소했지만, 북미/인도/중국/유럽에서 각각 30%/23%/19%/1% (YoY) 증가하며 외형이 성장했다. 북미는 신공장의 램프업이 지속되었고, 인도는 2분기 부품사 화재로 인한 고객사 생산차질이 해소되고 푸네 신공장 효과도 가세한 영향이다. 매출총이익률은 12.0%로 0.4%p (YoY) 상승했지만, 판관비율은 9.3%로 1.0%p (YoY)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은 0.6%p (YoY)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인건비(종업원급여/복리후생비)가 35억원(+9% (YoY)) 증가했고, 수출제비용(+18억원)/운반비(+7억원) 등 물류 비용도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한국 법인에서 환율 하락과 수출제비용 증가의 영향이 커서 영업이익이 56억원 (YoY) 줄어들었고, 영업적자(-9억원, 영업이익률 -0.5%)를 기록했다. 연결 영업외에서는 지분법손익이 11억원 (YoY) 개선되었으나, 환율 급락으로 외환손익이 272억원 (YoY) 감소하는 등 17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 결과 세전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86억원/-5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배당 증가 기대 등 개선되는 주주환원

피에이치에이는 지난 10월 16일 7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후 전량 소각을 공시했다. 자기주식 취득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취득/소각 주식수는 11월 18일 종가인 10,660원 기준으로 65.7만주로 발행주식 2,100만주의 3.1%에 해당된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개정 상법을 고려할 때 기보유 자기주식 146.7만주(발행주식의 7.0%)도 2027년 9월 기한으로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로부터 1.5년 내 소각. 단, 2027년 정기주총에서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할 경우 소각 의무는 면제). 또한, 강화된 주주환원 기조를 감안하면 2026년 주당배당금은 전년 400원에서 50원 증가한 450원(기대 배당수익률은 4.2%)으로 예상한다.

2026년 11월 20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네오셈 (253590)

성장의 다음 페이지를 확인할 시간

Not Rated

현재주가(11.19) **12,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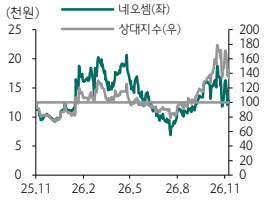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684.81
52주 최고/최저(원)	20,650/6,900
시가총액(억원)	5,461.7
시가총액비중(%)	0.14
발행주식수(천주)	43,869.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35.3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167.9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지분율(%)	
염동현 외 3 인	51.7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1,339	1,714
영업이익(억원)	366	491
순이익(억원)	314	491
EPS(원)	668	952
BPS(원)	3,348	4,29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47	1,009	1,052	639
영업이익	84	81	165	41
세전이익	113	93	226	54
순이익	100	83	192	53
EPS	262	207	438	122
증감율	74.7	(21.0)	111.6	(72.1)
PER	12.8	37.9	20.0	89.8
PBR	1.9	3.7	3.2	3.9
EV/EBITDA	0.0	0.0	0.0	0.6
ROE	16.1	9.5	16.6	4.5
BPS	1,761	2,123	2,722	2,797
DPS	35	30	60	10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3Q26 Review: 분기 최대 실적 기록

네오셈의 3Q26 실적은 매출액 507억원(YoY+398.8%), 영업이익 192억원(YoY 흑자전환, OPM 37.9%)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 특히 SSD 테스터 부문 매출액이 약 342억원으로 2분기 172억원 대비 약 98.8%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번인 테스터 부문 매출액은 15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국내 고객사 비중이 7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으나, AI 서버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및 SSD 수요 증가 등 전방 산업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차세대 SSD, CLT 및 CXL 관련 검사장비의 성장 잠재력이 반영될 수 있는 '27년 투자 관점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Gen5에 이어 Gen6 신규 오더 확대

SSD테스터 매출 비중은 2분기 전체 매출의 약 48%에서 3분기 67%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매출 상당 부분이 북미 글로벌 고객사향으로 출하된 것으로 파악되며, 4분기에도 SSD테스터 부문의 매출 비중은 65% 수준으로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방 업황 회복으로 '27년 상반기까지 주력 Gen5 모델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Gen6 모델에 대한 신규 오더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Gen6의 경우 채널 수와 발열 제어에 대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세대 대비 가격 및 마진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LT, CXL 3.1은 새로운 스타 아이템

CLT 장비는 '27년 동사의 탑라인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스타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전방 시장의 수요 흐름을 고려할 때 '27~'28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방 수요처의 물량 배분 과정에 동사의 신규 수주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XL 3.1 장비 역시 AI 서버 시장의 성장과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핵심 수혜 제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론 시장에서 GPU 연산뿐만 아니라 KV Cache 등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접근 효율성이 동시에 중요해지며, 대역폭 확보 경쟁과 메모리 풀링 기술 도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CXL 3.1은 메모리 확장 및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대안으로, 장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및 해외 고객사로 출하가 예상되는 만큼 '27년 동사의 +알파 아이템은 CXL 3.1 장비이다.

'27년에도 성장 가속화

SSD테스터 Gen5에 이어 Gen6 전환에 따른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와 CLT 장비 및 CXL 3.1 검사장비 양산 확대는 네오셈의 '27년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네오셈의 '27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908억원(YoY+35.0%), 영업이익 612억원(YoY+38.8%, OPM 32.1%)에 이를 전망이다. AI 서버 시장의 확대와 메모리 탑재량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로 검사 공정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30%를 넘어서는 수익성과 ROE 성장을 고려할 때 리레이팅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스페이스X 수혜주 찾기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11.2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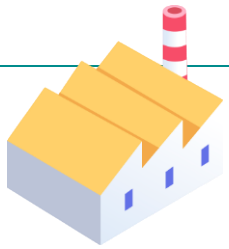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스페이스X가 지상망 투자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무선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G 도입 초기 디시네트워크의 통신 시장 진출도 큰 호재로 인식되었는데 사실상 체급이 다른 스페이스X가 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들의 관심은 스페이스X 장비 공급사가 어느 업체일 것인가 일텐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삼성,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은 과거 디시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큰 장점이 될 것이며 노키아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관계, 에릭슨은 전세계 1위 사업자로서의 위상과 오픈랜 구성 경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삼성은 스페이스X가 인수 추진 중인 부스트모바일의 대주주인 에코스타가 디시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삼성 장비를 사용 중이라 장비 호환성 측면에서 가점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반면 화웨이와 ZTE는 스페이스X 장비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 FCC 수입 금지 업체로 지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가 각종 세제 혜택, 국책 사업자 선정 등을 마다하고 중국 장비를 채택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이 스페이스X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RFHIC, LIG아큐버, KMW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 양상을 감안하면 과거처럼 중국 업체를 벤더로 선정하는 데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선 통신장비의 경우 현재 화웨이와 ZTE만 규제 리스트에 올라있지만 광 모듈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의 무선 장비/부품 역시 규제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2027년 삼성이 중국 안테나/필터, 트랜지스터, 계측기, 스몰셀을 사용할 확률은 낮다. 중국 부품을 사용하다가 규제 리스트에 오를 경우 버라이즌 등 통신사 공급 도중 부품 교체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교체 시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며 차후 벤더 내 M/S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글로벌 SI 입장에서는 납품 도중 부품 회사 변경은 쉽지 않다.
- 11/17일 로이터는 FCC가 중국산 광트랜시버 신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이노라이트/이옵토링크가 제재 대상에 들어갈 것임을 가정 시 직접적인 수혜주는 미국 루멘텀, 코히런트와 더불어 루멘텀 벤더인 RF머트리얼즈겠지만 2027년까지 길게 내다보면 국내 대표 통신장비들이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광트랜시버가 수입 제재 대상이지만 향후엔 무선장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의 국산 장비 채택 증가와 더불어 에릭슨/노키아의 한국산 장비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MW/RFHIC/LIG아큐버/쏠리드/오이솔루션에 대한 집중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 2023년 미국 BEAD 프로그램 예산 반영이 2024~2026년 광통신 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루멘텀과 코히런트가 대표적이다. 현 시점에서는 2025년 7월 OBBBA 법안이 제정되었고 2026~2029년까지 총 800MHz에 달하는 역대급 주파수 경매를 미국이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은 투자가들의 의심이 크지만 결국 미국내 삼성전자 M/S 상승과 더불어 에릭슨/노키아로의 국내 무선 통신장비 신규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5G/6G 주파수 경매가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의 놀라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판단이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SKT를 최선호종목으로 선정하는데 KOSPI 하락 시 기대배당수익률을 기반으로 7만원은 절대 지지할 것이며, AI 관련주 부각으로 KOSPI가 상승할 시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주는 KMW를 단기 최선호하며, RFHIC/LIG아큐버/쏠리드/오이솔루션 역시 투자 유망하다고 평가한다.

난이도가 낮아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유틸리티 Weekly | 2026.11.2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9.11% 하회했다. 18일 종가 기준 WTI 86.8달러/배럴(WoW -1.1%), 미국 천연가스 3.4달러/mmbtu(+4.3%), 아시아 LNG 현물 26.5달러/mmbtu(-15.4%), 호주산 유연탄 143.2달러/톤(+0.5%), 원/달러 환율 1,332.5원(-0.5%)을 기록했다. 유럽 가스 재고가 70%를 하회했다. JKM 원월물은 유가에 연동하여 약세지만 단기물은 견조하다.
-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이 11월 16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진행하며 기술적 평가 55점, 비기술적 평가 45점으로 구성된다. 송변전설비 신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자가발전, ESS 등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기존 평가항목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력 이용밀도 항목이 감점 요인으로 신설되었다. 일반 사업은 합산 70점 이상일 경우 평가를 통과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입지에 따라 평가 통과 점수를 차등하며 수도권 75점, 비수도권 70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통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수요 이전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판단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수도권에서는 28건, 1.9GW 규모의 사업이 신청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64건, 7GW 규모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진 LNG 기지는 2027년 5월에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 27만kℓ급 저장탱크 4기에 더해 기화 및 송출설비, LNG선 접안 및 하역시설을 건설한다. 2단계는 2029년 12월까지 저장탱크 3기가 추가되고 3단계로 2033년까지 총 10기 저장탱크, 저장능력 120만톤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요금기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 영업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동한다.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비율을 한도로 기초-기말 평균가액이 요금기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 10월 LNG 수입통계를 보면 수입량은 404.8만톤으로 전년대비 23.0% 증가, 수입금액은 6.5억달러로 21.6% 증가, 단가는 906.9달러/톤으로 76.4%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29.3%, 말레이시아 17.1%, 미국 13.1%, 캐나다 7.8%, 카타르 6.9% 순서로 확인된다. 카타르산 LNG가 지난 7월 9.1만톤에 이어 10월 22.7만톤 수입된 부분이 특이한 지점이다. 카타르와 미국산 단가가 각각 962.1달러/톤, 925.3달러/톤으로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JKM에 가격이 연동된 물량으로 판단된다. 월별 도입단가 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국내 LNG 연료비단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낮아진 점을 반영해도 kWh당 180원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SMP도 LNG 연료비단가를 하회할 전망이다. 일시적으로 150원/kWh을 상회한 이후 다시 130원대 후반~140원대 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SMP가 낮은 기간 동안 한국전력의 원가 절감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구입비 증가세 둔화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마진 압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결코 승자는 아니다.
- 원전 공론화 공개토론회가 25일 개최된다. 주제는 전력 수요 증가의 대응 수단으로서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신규 원전 호기 수, 입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은 제외된다. 후속 일정으로 12월 11일~13일 숙의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이 제출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완료 이후에 12차 전기본 초안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6) 가격은 19일 종가 기준 29,550원으로 전주대비 -1.5% 하락, YTD 184.1%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K가스(Top Pick): 이번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 헷지 종목. 특별배당 가능성과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 저점 확보에 기여
- 한국전력: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은 긍정적.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까지 현실화될 경우 비용 지표가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6,900	-4.42%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SK텔레콤 (017670.KS)	11/16	83,900	80,200	-4.41%	• 가입자 유치 정상화 및 마케팅 비용 안정화에 힘입어 2026년 영업이익 1.95조원 기대 • 비과세 배당 시행에 따른 수급 개선과 앤트로픽 상장 가치 부각으로 재평가 기대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16	204,500	203,500	-0.49%	• 중국발 고운임 비계열 물량 확대와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3분기 해운 부문 수익성 개선 • 고마진 비계열·High&Heavy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11/16	1,210,000	1,250,000	3.31%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이수페타시스 (007660.KS)	11/16	88,500	83,000	-6.21%	•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다층 MLB 기판 수요 증가 기대 • 고부가 AI 가속기·네트워크 장비용 제품 비중 확대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기대
팬오션 (028670.KS)	11/16	4,990	5,100	2.20%	• 해상 운임 상승과 벌크선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Q 영업이익 1,974억원(YoY +58%) 기록 • 신규 배당정책 발표 및 에너지 스팟 계약 비중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효성티앤씨 (298020.KS)	11/16	303,000	263,000	-13.20%	• 중국 스판덱스 공급과잉 완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업황 회복과 판가 인상으로 호실적 기대 • 유가 변동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구조와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 매력 부각
계룡건설 (013580.KS)	11/16	27,100	25,950	-4.24%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20,300	8.56%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44%	-0.65%p	+69.62%	+34.4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6,900	-4.42%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20,300	8.56%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GS건설 (006360.KS)	11/9	29,750	30,150	1.34%	• GS그룹 동해 AI 데이터센터 1.2GW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성장동력 확보 기대 • 연간 분양 물량 1.7만 세대 달성 기대에 힘입어 2027년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
SK가스 (018670.KS)	11/9	234,000	212,000	-9.40%	• 동절기 아시아·유럽 LNG 가격 상승에 따른 LNG-LPG 스프레드 확대 수혜 기대 • 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트레이딩 수익 확대에 힘입어 연간 순이익 사상 최대치 달성 기대
코스맥스 (192820.KS)	11/2	247,000	290,500	17.61%	•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3분기 호실적 전망 • 미국 법인 흑자전환과 동남아 사업 턴어라운드, 중국 매출 회복으로 ODM 경쟁력 강화
계룡건설 (013580.KS)	11/2	22,250	25,950	16.63%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SK바이오팜 (326030.KS)	10/26	76,900	87,100	13.26%	• 엑스코프리 판매국 확대에 따른 로열티·원료의약품 매출 성장 기대 • 오파칼림 임상 재개 시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10/19	1,229,000	1,250,000	1.71%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한미약품 (128940.KS)	10/19	397,500	422,000	6.16%	• 로수젯 등 주력 제품 성장과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실적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진전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티에프이 (425420.KQ)	10/19	62,900	75,200	19.55%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06%	+9.66%p	+22.92%	-12.2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3,245	-18.3%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틱AI TOP2+ (0227L0)	2026.09.22	10,655	9,300	-12.7%	• 에이전틱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틱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27,775	-6.0%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9,365	5.1%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3,990	-31.8%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AI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9,795	-41.4%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26,145	-29.1%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7,330	-26.6%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0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68.46	-22.6%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459.54	40.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퀄리티)	2026.09.22	247.92	191.64	-22.7%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6.06	3.2%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1.58	8.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12.61	-49.2%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55.18	-15.0%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45.04	-7.2%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일본 3분기 GDP P (-0.1%, 이전치 1.4%) ▪중국 10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1.1%) ▪중국 10월 광공업생산 (4.8%, 이전치 5.5%) ▪중국 10월 고정자산 (-8.1%, 이전치 -7.2%) ▪일본 10월 광공업생산 (1.7%, 이전치 1.9%)	▪영국 9월 ILO 실업률 (4.6%, 이전치 4.7%) ▪독일 11월 ZEW 서베이 (35.6, 이전치 28.1) ▪미국 10월 소매 판매 (0.2%, 이전치 0.8%)	▪영국 10월 CPI (3.6%, 이전치 3.5%) ▪유로존 10월 CPI (4.0%, 이전치 4.0%)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9.9%, 이전치 -5.2%)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0.3%, 이전치 5.2%)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E 20.1, 이전치 20.9)	▪한국 10월 PPI (E --, 이전치 7.7%) ▪일본 10월 CPI (E 2.5%, 이전치 2.1%) ▪중국 11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11월 소비자기대지수 (E -18.0, 이전치 -17.9)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E 51.5, 이전치 51.0)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독일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2) ▪독일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5)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7)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8) ▪미국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9) ▪미국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6.1)	▪일본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3) ▪일본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독일 11월 IFO 예상 (E --, 이전치 91.6)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3%)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92.1, 이전치 91.7) ▪미국 10월 개인소득 (E 0.3%, 이전치 0.2%)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 1.9%)	▪한국 11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0%) ▪독일 12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30.8)	▪중국 11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4.4%) ▪미국 10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